

# 가상화폐 거래소 위반 혐의 조사 진행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필요하다면 법률 제정 통해 규제·제재 수단 마련 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약관법 위반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업자 신고에 맞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와 거래 상대방 출금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의 약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약관법 위반 부분에 가서는 적어도 3월까지의 결과를 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서 적절한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규제·제재 수단들을 마련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 부처 사이에

약간의 조율되지 못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란들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각 부처에서 충분히 협의해 조율된 어떤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올 상반기까지는 자발적인 개혁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선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기업을 비롯한 위법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재벌’이

라는 단어를 쓰셨다”며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전체에 재벌 개혁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12월 또는 3월 이렇게 데드라인을 제시를 했지만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자발적인 개혁을 촉구하겠다”며 “그래도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반기부터는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을 통해서 보다 직접적인 개혁을 요청 드리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뉴스



**미세먼지 비상**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행사마스크' '미세먼지'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어느 대형마트에 행사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집중 홍보의 날'

### 전북중기청, 한옥마을·풍남문 상점 찾아 현장홍보 추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17일을 '일자리 안정자금 집중 홍보의 날'로 정하고 음식점 등 소상공인이 밀집한 전북관광 1번지인 전주 한옥마을과 풍남문 상점가에서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추진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장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에 시행되었지만, 지원대상이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에 따라 제도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사업장을 찾아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을 안내했다.

지난 11일 전주 서부신시가지 현장홍보에 이은 이번 2차 캠페인에는 전북중기청, 전주세관, 테크노파크, 창조혁신센터 등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 중소기업중앙회, 여성경제인협회, 뿌리산업협회, 상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총 20개 기관 50여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전북중기청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빠

집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밀집지역 및 상점가를 직접 찾아가는 발로 뛰는 현장홍보를 실낱까지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홍보와 더불어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게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신청을 유도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추이를 지켜보며 신청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1년에 1만만 신청하면 되는 만큼 초반 실적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고,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1월 급여가 지급되는 월말 이후 본격적으로 신청과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마련한 지원사업이기에,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 군산시수협 사상 최대 흑자 32억 달성

군산시수협(조합장 김광철)은 2017년 결산에서 창시 이래 최대인 32억 흑자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흑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경제 13억, 상호금융 19억 등 총 32억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위관실적은 922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8억이 증가된 위탁판매가 이루어져 타지어선 유치와 관내 어업인들의 위관 향상에 노력한 결과라 밝혔다.

김광철 조합장은 "조합원들과 인적원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이룬 결과이며, '앞으로도 이번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노력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선두 조합으로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밖에도 해망동 수산물저점단지 내에 수산물 직매장을 개장(2018년 1월 10일)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물을 관광객 및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사업비 90억(국고보조 및 자담)을 확보하여 3개년 사업으로 기존 소용동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을 철거하고 2018년 4월 착공하여 2019년까지 완공 예정으로 수산물저장시설이 확보되면 우리수협 위관장을 이용하는 중도매인들의 원활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으로 어업인들의 어가유지 및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또한 김 가공공장 건립사업비 70억, 선유도위관장 신축사업비 6억(2018년 완공), 비응항위관장 현대화사업비 5억(2018년 완공)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공되면 생산어업인의 안정적 판로기반 확충과 지역상품의 브랜드화, 어업비용 절감, 천혜의 경관과 연계한 지역수산물 판매에 따른 관광산업 활성화 마련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김관근 기자

## "고용유지 소상공인 위한 저금리 대출 내달 출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혜택을 주는 대출상품을 내달 초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김도진 기업은행장,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등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카드 수수료 부담 문제 등을 정부가 적극 수

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완화와 국민 삶의 질제고 등을 위한 선결과제"임을 설명하고 "다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상인들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행과 함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유리한 금리조건 대출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

## 한국은행 전북본부, 중소기업 설 특별자금 지원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단기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10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200억원) 한도 내에서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은 도내 금융기관 각 영업점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업체당 2억 5000만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5억원) 이내에서 1년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

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중소기업 중 단기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로, 금융기관이 취급한 일반운전자금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

단 부동산업과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은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자금 지원으로 설을 맞아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전북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완화 및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고향사랑상품권 소상공인 소득 ↑

### 1인당 최대 2.13% ↑ ... 관광객 대상 판매 매출효과 가장 커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 지자체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사용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해 8~12월까지 실시한 '고향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고향사랑상품권을 도입한 기초 지자체 중 각기 다른 세가지 모델별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양구의 경우(내부형)는 상품권 유통량이 지역내 총생산(GRDP) 대비 0.83%에 불과하나 상품권 발행에 따른 소상공인 1인당 추가 소득 증가율은 2.13%로 분석됐다.

춘천(외부형)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품권이 판매됨으로써 외지인의 지역내 추가 매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상품권 판매액(지난해 8월말, 6억원) 대비 지역내 지출이 3.75배(22억 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광객 1명이 상품권 1만원을 구매하면 지역내에서 3만7500원을 소비하

는 셈이다.

화천은 산천어 축제를 활용한 관광객과 내부 주민들이 이용하는 통령으로 GRDP대비 상품권 유통규모가 적은 비율(0.19%)임에도 소상공인 소득 상승 효과(1.13%)가 컸다.

특히 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예산(4400만원) 대비 부가가치가 15.9배(6억9800만원)로 효과가 가장 컸다.

상품권 판매액당 지역소득효과는 외부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형의 경우도 지역내 거래순환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시장은 "이번 연구결과로 고향사랑 상품권 정책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중상품권 도입과 활용에 관한 근거법 제정과 함께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